



내년 10월 21일부터 1주일간 대규모로 개최될 서울에어쇼를 위해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제작한 포스터

내년 10월 21일 서울에어쇼 개최 공군·협회, 성남비행장서 국제규모로

내년에 「제7회 서울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및 에어쇼 (Seoul Air Show '96)」가 국제규모로 성남 비행장에서 열린다.

지난 8월 14일(월)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공군본부(대전 계룡대)에서 동 에어쇼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, 오는 '96년 10월 21일~27일까지 7일간 공군 서울기지(경기도 성남)에서 국제규모로 개최키로 최종 확정했다.

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, 영국, 프랑스, 러시아, 중

국 및 독일 등 모두 20여개국 200여 업체(국내 50, 국외 150)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 에어쇼에서는 '미래 항공우주 발전방향'을 주제로 한 국내·외 석학들의 학술발표(항공우주 심포지엄)와 각종 군·민용 항공기, 무기체계 및 항공우주 관련 장비, 기술 전시(항공산업 전시회 및 테크노마트), 그리고 국내의 업체 제작의 항공기 성능 시범비행 및 한국공군, 외국군, 민간 곡예비행팀의 묘기비행(에어쇼) 등 국제규모의 행사로서 대대적으로 개최된다.

동 에어쇼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, 항공우주 과학분야의 세계화 구현 및 對 주변국 안보역량을 과시함은 물론, 對 국민 신뢰도 및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중형항공기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

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3차회의가 8월 23일(수) 과천 호프호텔에서 열렸다.

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,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, 건설교통부 항공국장, 과학기술처 기계소재 연구조정관 등 정부 인사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, 항공우주연구소, 산업연구원 등 단체 및 연구소 책임자, 서울대학교, 인

하대학교, 과학기술원, 세종대학교 등 관련 대학 교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총괄주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와 개발기관인 중형항공기 사업조합에서 부의한 안전을 최종 확정하는 기구이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1차연도 사업 실적 평가하고, 2차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였으며,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운용요령 및 연구관리지침을 제정했다. 부의 안전은 4차 심의위원회 안전과 같다. <43Page>

항공우주 관련 '96년도 정부예산(안) 396억6천만원 책정

재정경제원이 내년도 예산(안)에 대한 2차 조정을 마침으로써 항공우주 부문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.

8월 7일자로 조정된 동 예산(안)의 내역은 '중형항공기 개발'은 233억4천만원, '다목적 실용위성 개발'에 162억7천만원, 그리고 서울에어쇼와 관련한 '항공우주 테크노마트(Technomart)'가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. 이와같

은 총 396억6천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통상산업부가 요구한 652억원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규모이나, 1차 조정시의 353억1천만원보다는 43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.

한편 통산부는 이번에 확정된 항공우주 관련 예산(안) 중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예산은 적정수준을 확보하였으나,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예산에서는 아이언 버드(Iron Bird) 설치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고등훈련기사업 전망 밝다. 록히드 마틴社 KTX-2비전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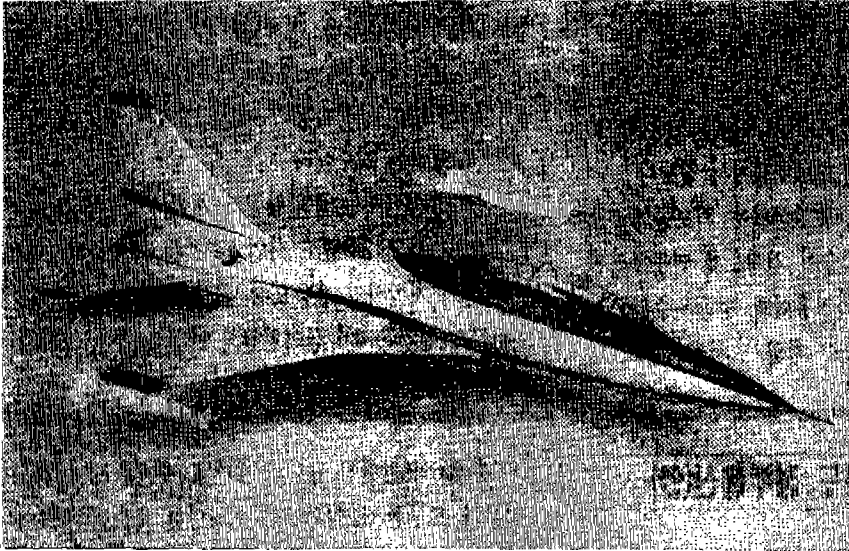
내년부터 상세설계, 시제기제작 등 체계개발에 들어갈 고등훈련기인 「KTX-2」사업이 오는 2015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3천5백대의 시장을 창출,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견인차 노릇을 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. KTX-2기 한대의 가격은 2천만달러에 이르러 2015년의 시장 규모는 7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.

한국공군의 KTX-2사업 기술파트너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는 8월 15일 국방부에 제출한 「KTX비전」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F-5, T-38 등 고등훈련 경공격급 항공기의 노후화로 오는 2015년까지 약 3천5백대가 도태될 것으로 예측했다.

록히드는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호크(영국), 알파제트(프랑스)이후 차세대 고등훈련기개발계획이 없어 한국의 KTX-2사업의 전망이 아주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. 또 2003년계가 되면 한국업체의 고등훈련기 독자 생산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항공산업사에서 군용항공기를 수출하는 첫 사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. 이 보고서는 2000년대부터 한국의 항공산업은 완제기를 개발·생산·판매하게돼 민수부문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할 경우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
현재 KTX-2기의 국내수요는 1백대가 확정돼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경공격기인 F-5(제공호)의 대체수요가 약2백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

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해외마케팅법인을 설립할



한국공군이 오는 2003년 생산을 목표로 개발중인 고등훈련기 KTX-2기의 모형

경우 전세계에 약 3천5백대의 F-16기를 판매한 록히드의 영업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.

KTX-2기는 미국,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에까지 판매돼 2000년대초에는 해외 수요만 8백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한국공군과 기술파트너인 록히드 마틴사는 KTX-2기로 훈련을 받을 경우 미국이 개발중인 최첨단 전투기인 F-22기와 유러파이터(EFA) 등 21세기 차세대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쪽으로 개발방향을 맞추고 있다.

현재 운용중인 호크기와 알파제트기 등은 지난 60년대 개발된 음속이하의 기종으로 이미 기체가 노후화돼 F-22나 EFA 등 차세대 신예기훈련에는 부적합한 것으

로 판명됐다.

KTX-2기는 고등훈련용 뿐만 아니라 가벼운 공격용 전투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국방력증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이 기종은 F-16, F-15기 등 최첨단 전투기의 전단계 훈련수행에도 사용됨은 물론 그 자체로서도 F-5급의 전투수행이 가능하다.

한국공군은 총15억달러(1조2천억원)를 들여 KTX-2기를 개발 생산할

계획이며 올해안으로 기본설계를 마칠 방침이다. KTX-2기는 2000년대초부터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는 F-5기 약 1백대를 우선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국방부는 KTX-2사업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올해까지 국방예산 3백50억원을 투입했으며 미국 록히드사 공장이 있는 텍사스 포트워스에 우리 기술진 1백여명을 파견해 놓고 있다. 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은 2백50억원을 부담했다.

항공업계는 한국형 KTX-2기 개발사업이 차세대전투기(FX)사업과도 연관을 맺어 항공기술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8월중 완료

최근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언급된 바 있는 정부의 「국가우주개발 중장기계획」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.

지난 해 7월부터 항공우주연구소(KARI) 주관하의 정책, 위성체, 발사체, 위성이용 및 우주탐사 등 4개 분야 기획단과 산업연구원(KIET) 등의 관련 전문가 50여명

이 작성 중에 있는 동 계획은 이달 중에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와 과거처 등 관계부처 조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종합과학심의회에 상정, 국가계획으로 최종 확정된다.

한편 동 계획의 초안은 8월 24일(목) KARI에서 개최되는 「국제우주기술 심포지엄」에서 발표될 예정이다.